



정영식 민주당 목포 후보가 6일 동명동 수산시장에서 상인들과 얘기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 박지원 무소속 후보가 6일 목포 시내에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지지자들을 만나 한 표를 당부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목포 막판 단일화 바람 VS 무소속 거물의 힘

4·9 총선 표밭

○~정영식 민주당 목포 후보는 후보 단일화 이후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표를 끌어오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

정 후보는 7일 목포 원도심의 국제서점 앞과 3호광장 흠풀러스 앞에서 집중 유세를 갖고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강력한 야당을 건설하고, 민주당을 되살리기 위해선 개혁공천을 통해 후보로 선택된 정영식 후보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지지를 호소.

박지원 후보(무소속)는 이날 아침 7시 동아아파트 사거리를 시작으로 원도심 전지역과 하당 신도심까지 목포시내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막판 표심 모으기에 분주.

박 후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난 14대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낸 박지원이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 박 후보는 또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음해하는 네거티브 선거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정당당한 승부를 촉구.”

김영록 “금품살포, 신속 수사 발표하라”

○~김영록 무소속 해남·완도·진도 후보는 7일 민화식 민주당 후보의 불법 금품살포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선거구민들이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선거일 전까지 신속히 발표할 것’을 검찰에 촉구.

김 후보는 성명서에서 “전남도선관위가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후보의 배우자와 최측근을 광주지检 해남지청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 유권자 여러분은 진실을 알고 계실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

민 후보는 이와 관련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금품살포사건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음해세력이 조장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같은 하위사실을 유포한 개인과 단체,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

경기정-한화갑-김경진 ‘부동표 잡기’ 총력

○~경기정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갑 후보는 7일 북구 신안동 자동차 거리와 우신동 말바우시장, 두암동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며 부동층 표심 잡기에 총력을 벌이는 한편 투표 참여를 독려.

강 후보는 이날 거리 유세에서 “전국 최고 투표율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반드시 투표에 참여,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힘을 실어달라”고 역설.

한화갑 무소속 후보도 이날 “유권자 표심이 결정되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막판 뒤집기를 위한 승기를 잡았다”면서 지역민들을 상대로 한 표심 잡기에 총력.

한 후보는 또 성명서를 내고 “일부에서 도청 이전과 관련,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선거 분위기를 흐리면서 후보를 흡족내는 일은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

김경진 무소속 후보도 광주역, 말바우시장과 동사무소 등을 돌며 “오는 9일, 기존 정치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심판이 필요하다”면서 “1인 2표제로 정당과 인물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만큼 광주 미래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달라”고 호소.

박주선-김태욱 “재래시장·동구 활성화 죄선”

○~박주선 민주당 광주 동구 후보는 7일 동구지역 재래시장과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거리를 누비며 막판 부동층 표심 잡기에 총력을 펼치는 모습.

박 후보는 이날 대인시장과 동명동 상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형유통 업체의 입점으로 지역에서 오랫동안 터를 닦아온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 등이 쇼핑의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김태욱 한나라당 광주 동구 후보는 이날 운림동과 계립동 지역 아파트를 방문, 입주자들을 만나 지지를 당부.

김 후보는 계립동 금호아파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구의 도심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고 낙후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4·9 총선]

민주당 “거대여당 견제 힘 실어달라”

한나라 “일당독주 막아야 광주 발전”

광주 후보들 회견 ‘지지’ 호소

4·9 총선을 이틀 앞둔 7일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광주지역 후보들은 막판 승기를 잡기 위해 각자 지지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 광주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7일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을 견제할 야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를 뽑아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임애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은 이날 “광주를 발전시키고 이명박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면서 “도덕적으로 검증된 민주당 후보를 뽑아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다.

이아화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도 이날 광주를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지병문 민주당 후보 등과 함께 벌인 거리유세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민주당의 힘을 분산시키고 한나라당에게 힘을 보태주는 것”이라며 “소신을 지키

고 제대로 일할 줄 아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광주지역 후보자 8명은 이날 국립 5·18묘지를 참배하고 “낙후된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후보들은 이날 ‘광주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당의 일당 독주가 계속 이어진다면 광주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장래 희망도 없을 것”이라며 “새 정부와의 통로 역할을 할 여당 후보들에게 광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현안을 챙길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다.

한영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정용화 한나라당 서구갑 후보의 지원 유세에서 “대한민국과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라며 “오는 4월 9일 새로운 정치 역사가 탄생하는 드라마를 시민들이 만들어 달라”고 역설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치적 파워 증명, 이미지는 손상?”

■ 박근혜 ‘침거’ 뭘 잊고 얻었나

“정치적 파워는 증명, 이미지는 손상?”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당 공천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지역구인 대구 달성에 내려온 지 7일로 보름째, 4·9총선 선거운동을 빌미로 시작된 박 전 대표의 대구 침거가 끝나고 있다.

이 기간 박 전 대표의 동선은 전날 측근인 강창희 후보 지원을 위해 대전 서구를 방문한 외에는 달성으로 한정됐다.

어찌 보면 단순하기 짙이 없는 이 행보를 통해, 현재까지 박 전 대표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을까.

‘득(得)’의 측면에선 무엇보다 영남 및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단단한 대중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정작 선거 기간 본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대구 지역구에 내려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남권을 중심으로 ‘친박(친박근혜)’ 무소속 바람이 일어나면서, ‘부재’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

게다가 전후 맥락이야 어찌됐든 본인이 잘못된 공천의 책임자로 강제석 대표를 지목하자마자, 강 대표가 바로 당직을 사임했다.

또 박 전 대표가 대구 달성에 침거하며 한나라당은 선거 기간 전국단위 유세를 소화할 마땅한 인물 하나 내세우지 못했다.

반면 가장 큰 ‘실(失)’은 이미지에 입은 상처라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주요한 정치적 자양으로 삼아온 그로선, 어찌됐던 공천이라는 ‘밥그릇’ 싸움의 한 가운데 상당히 오랜 기간 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원 유세는 하지 않으면서 일부 측근들에게 지원 동영상을 보냈고, 강창희 후보에 대해선 선거사무소 방문이란 우회적 방법을 통해 사실상 지원하기도 했다. 과연 ‘원칙이 무엇이냐’는 질문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물론 전체 대차대조표는 총선 결과가 나와야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세계최초 세기보청기

1588-5555 771-0100
1588-5555 771-0100